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7월 12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

사도행전1:12-14 / 통일찬송가 467 (새찬송가 없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며 ‘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자신만을 생각하다보니 나를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목표를 세우고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 뿌듯해하며 교만해집니다. 또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사도바울은 이런 사람 중심의 생각을 물리치고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사람 중심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생각들에 빠져 막연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 밖에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세례 받기 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세례를 받으면 겉으로 방언이라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관계를 뚜렷하게 의식하게 됩니다(요14:20)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함은 이런 관계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고난의 끝자락에서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으나 눈으로 보는 관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욥42:5). 이는 고난 전에도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고난 후에는 그 관계가 더 깊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관계보다 눈으로 보는 관계가 더 생생하고 체험적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눈으로 보는 관계 즉 생생하고 체험적인 삶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믿음의 완성이며 의심이 하나도 없는 확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믿음으로 예배드리

다가 평일에 세상에 나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숨깁니다. 그런 세상을 사는 성도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욥의 고백처럼 앎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엡4:13).

성령세례 받은 제자들이나 사도바울의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앎의 단계가 되어 주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써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합시다(빌 4:13)!

< 적용 & 실천 >

나는 내 힘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그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